

국회의장 주태 쿠웨이트 대사 접견

입력 2021.03.16



2021년 3월 16일 (화) 오후 2시에 추안 립파이 (Mr. Chuan Leekpai) 국회의장 겸 하원의장은 국회의사당 3층 접무실에서 신임 주태국 쿠웨이트 대사로 임명된 모함마드 후사인 에 알파이라까위 (H.E. Mr. Mohammad Husain Alfaiakawi) 쿠웨이트 대사의 예방을 받았다. 추안 의장은 대사에게 환영의 인사를 드리며 1년 동안 대사의 역할을 하며 코로나 19 확산 상황이 좋아지면 태국 전체 방문할 기회가 생길 거라고 전했다.

주태 쿠웨이트 대사는 추안의장이 예방을 받아줘서 영광이고 고맙다고 인사를 하며 이 기회에 두번째로 국회의장을 만나게 되었다고 말했다. 앞서 2020년 9월 29일에 의장이 셰이크 사바 아흐마드 알자비르 알사바 (Sheikh Sabah al-Ahmad al-Sabah) 쿠웨이트 국왕 서거에 조의를 표한 기회에 한번 만나게 되었다.

대사가 쿠웨이트 국회 의장의 안부를 전하면서 코로나 19 상황이 좋아지면 쿠웨이트 의장과 협력하여 쿠웨이트를 방문하기를 초대했다. 추안 의장은 고맙다고 말하면서 코로나 19 상황이 좋아지면 대사의 초대에 쿠웨이트에 방문할 것이라고 답했다. 또한

쿠웨이트 국회 의장에게 안부를 전하면 쿠웨이트의 민주주의 시스템이 중동 국가중에 제일 뛰어나다고 칭찬했다.

또한 국회 의장은 쿠웨이트 정부가 쿠웨이트에서 유학한 태국 학생들을 지원해주고 있다고 했으면서 전문 대학에서 유학까지 지원 범위가 확대되게 되면 그들에게 진로 기회를 제공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사는 현재 태국 유학생들이 자기의 나라 반전을 위해 대부분 쿠웨이트나 중동 국가들에서 공학, 경제학, 의학 분야에 관한 장학금을 받았다고 대답했다.

기자/편집: 태국하원사무처

번역: 완위문 마우답, 태국 하원사무처 외국어 지원사무국

https://www.parliament.go.th/ewtadmin/ewt/202006/view_news.php?n_id=77106







